

# 광주 대표 '숙련기술인' 뽑는다

### 광주기능경기대회 4월 3일부터 5일간...36개 직종 324명 참가 대회 우승자 광주시 선수단 활동...전국대회 종합 7위 목표 훈련

'숙련기술인들의 축제'라 불리는 기능경기대회의 첫 막이 오는 4월 3일 열린다. 광주시 기능경기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우승자들은 10월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전국 선수들과 자웅을 겨루게 된다.

특히 광주 선수단들은 올해 전국 대회에서 역대 최고 종합순위인 7위를 목표로 잡았다. 특히 오는 2025년 광주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는 '2023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개최 직종은 광주의 대표 뿌리산업인 금형을 비롯해 전국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차체수리, 메카트로닉스 등 총 36개 직종의 324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공공과와 광주전자공공, 금파공공 등 특성화

고 선수들은 264명으로, 출전 선수의 81.5%에 달했다. 이밖에 대학생 3명(0.9%), 법무직종 7명(2.2%), 학원 소속 9명(2.8%), 산업체 2명(0.6%), 개인 39명(12%) 등이다.

특성화고 소속이 많다는 점에서 10대 선수들이 82%로 대다수였고, 20대는 4%, 30~40대 6%, 50대 이상 7%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79%, 여성 21%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소정의 상금을 비롯해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또 오는 10월 14일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광주시 선수단으로 활동하게 되면, 올해 전국 대회 종합 7위를 목표로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광주시 선수단은 전국대회에서 2020년(55회) 10위에서 2021년(56회) 8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57회 대회에서도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출전했음에도 9위의 성적을 거둬 올해 최고 성적 기록 갱신도 기대되고 있다.

2025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60회 전국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광주시 대회는 유독 중요하게 여겨진다. 올해 광주시 대회를 비롯해 전국 대회를 경험한 지역 1학년 학생들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2025년 광주시 열린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전국 대회 1·2위 입상자들은 평가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한다. 2024년 10월 프랑스 리옹에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광주지역 출신 선수들의 국가대표 선발에도 관심이 크다.

광주 특성화고 소속으로 국가대표에 선발, 2019년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산업제어 부분 금메달을 딴 양수민(현 삼성중공업)씨를 비롯해 2022년 국제대회에서 메카트로닉스 부분 동메달을 딴 유현식·조수웅(현 삼성전자)씨 등 숙련기술인들이 배출된 바 있다.

허서혁 광주시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장은 "광주지역 우수 기능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앞장서는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 브랜드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7층 '브룩스 브라더스' 매장에서 고객이 재킷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광주점에 신규 입점한 브룩스 브라더스는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최초 기성복 브랜드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애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광주점에서는 신규 입점을 기념해 다음달 16일까지 S/S 시즌상품을 10%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 등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비아농협, 상호금융예수금 1조3천억원 달성탑 수상

### 자산건정성 3년 연속 '금' 수상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흥식)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 예수금 1조3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광주비아농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고환율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신용사업 운영으로 지속 성장해 이번 상호금융 예수금 1조3000억원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광주비아농협은 자산건정성을 대상·금·은·동 등급으로 평가하는 '클린뱅크' 평가에서 최근 3개년 동안 '금' 등급을 연이어 수상했으며, 전반적인 신용사업 평가 척도가 되는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도 그룹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흥식 조합장은 "상호금융 예수금 1조3000억원 달성은 조합원과 지역민이 농협을 이용해주시는 덕분에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금융

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맞춤 컨설팅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돕는다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설팅 비용 최대 4일 90% 지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경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광주·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소재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주관 국비사업으로 두 기관에서 올해로 3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

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경영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최대 4일까지 비용(국비 90%, 자부담 10%)을 지원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

로 컨설팅 비용(국비 100%) 및 경영개선 바우처 최대 300만원(국비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가치창상 ▲판로창출 ▲스마트 전환 ▲경영·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지식재산권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1@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9.22 (-5.74)
↑ 코스닥	827.69 (+3.58)
↑ 금리(국고채 3년)	3.220 (+0.060)
↑ 환율(USD)	1301.50 (+7.20)

## 광주축산농협, 21대 김호상 조합장 취임식



### 조합 운영 방향 제시

광주축산농협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김호상 조합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김호상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 운영 기본 방향 네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여·수신 각 1조 원 달성 ▲조합원과 소통하는 조합원 중심의 열린

경영 ▲복지와 환원사업 확대 ▲윤리경영운동 실천을 통한 청렴한 조직 및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약속했다.

김호상 조합장은 "지금처럼 축산환경이 어려울수록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선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든 구성원과 소통과 화합하고 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